

## 이옥(李錕)의 글에 나타난 18세기 조선시대 복식

최 지 희 · 홍 나 영<sup>+</sup>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The Costumes of 18th Century Joseon Dynasty from Lee Ok's Writings

Ji-Hee Choi · Na-Young Hong<sup>+</sup>

Curator, Seoul Museum of Histor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2. 10. 22, 심사(수정)일: 2013. 3. 16, 게재확정일: 2013. 6. 17)

####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ostumes of 18th century Joseon dynasty that appears in the writings of Lee Ok(李錕, 1760~1815). The main characteristics that can be inferred about the clothing from his writings are as follows. 1) It suppose that the color of first grade(一品) official uniform was purple. The popular color for the bride's ceremonial dress was red. 2) It was likely that only bridesmaids or married women were allowed to wear *Jokduri*(ceremonial coronet). 3) White clothes were only preferred in Yeongnam-udo, whereas other regions mainly wore blue, which differs from the national preference for white clothes that was prevalent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4) Once cotton was harvested, it only took 5 days to convert it into cotton cloth and be sold on the market. Cotton clot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duct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common practice in markets to sell expensive costume materials as counterfeits or fungible goods with the intent to cheat. 5) The buddhist monk's hat is various that short cylinder form(短桶帽) and jade or gold headband button(玉圈·金圈) attached shape, etc. Consequently, Lee Ok's writing is a suitable reference for researching Joseon dynasty clothing, since it includes detailed and various descriptions of everyday clothing worn by strict noblemen, which is difficult to find elsewhere.

Key words: *Jokduri*(족두리), Lee Ok(이옥), preference of white clothes(백의선호), production of cotton cloth(면포 생산), wedding costume(혼례복), 18th century(18세기)

## I. 서론

이옥(李錡, 1760~1815)은 18세기 조선시대에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처벌받아서 알려진 인물이었다. 정조는 당시 유행하던 폐관소품(裨官小品) 문체는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있어서, 조금하고 경박한 것이 평온한 세상의 문장 같지 않다고 비난하였다. 따라서 옛날의 바른 문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조는 많은 조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궁철·김조순·이덕무·박제가 등의 여러 인물이 자신의 문체에 대하여 반성문을 쓰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당시 성군관 유생이었던 이옥은 과거에 응시한 문장이 소설체라는 이유로 정조에게 직접 지적당하고<sup>1)</sup>, 반성문 처벌 후에도 문체가 이상하다고 하여 양반신분임에도 군역에 강제로 복무하는 충군(充軍)의 벌까지 받았다.

이처럼 계속되는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옥은 자신의 문체를 크게 바꾸지 않아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고 생전에 개인 문집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사후에도 체계적으로 편집이나 출간된 것이 없었고, 다만 필사본이 분산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sup>2)</sup> 그러나 풍속과 개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그의 문체는 지속적으로 조명을 받아 현존하는 그의 글을 모두 수집한 『완역 이옥 전집<sup>3)</sup>』이 최근 번역·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옥의 글은 국문학·한문학·민속학 분야 등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문학계에서는 그의 소품체와 세태묘사 내용, 민속학계에서는 영남지방 건문기인 「봉성문여(鳳城文餘)」에 나타난 지방 풍습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분야의 연구성과물에도 복식 관련내용은 언급되지만, 대부분 이옥의 세밀한 묘사력을 강조하는 자료나 다양한 지방 풍습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그의 글은 부(賦)·서(書)·기(記)·전(傳) 등의 일반적인 장르 외에 일반 문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문여(文餘)·이언(俚諺)·희곡(戲曲) 등을 아우른다. 문여 등의 장르는 당시

의 생활상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으로, 경전을 논하거나 자연 경관을 우아하게 표현한 글이 많은 양반사대부 문집 글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 중국 고문헌의 인용문으로 대부분이 구성된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찰내용과 견해가 기반이 되어 조선시대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특징도 있다.

일상생활에 관심이 많고 세세하게 서술하는 경향은 폭 좁은 저고리와 가체의 폐해를 비난한 것으로 유명한 이덕무(李德懋, 1741~1793)도 못지않으나, 이옥은 그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유쾌하다. 일례로 이덕무는 비난한 담배를 이옥은 매우 좋아하여 담배를 예찬하는 글을 여러 편 남겼을 뿐 아니라, 「연경(煙經)」이라고 제목까지 지어서 담배의 장점에 대하여 일일이 서술할 정도였다. 또한 당시에 사용하는 이두식 우리말에 호의적이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중국식 한문 명칭으로 건기(件記)를 작성하고 지칭하는 풍조에 대하여 비판하는 면모<sup>5)</sup>를 보인다.

따라서 양반들이 사소하고 천박하다고 생각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복식에 관한 묘사가 그의 글에는 생생한 표현으로 다수 등장하여, 당시 사람들의 차림새, 서울의 귀금속 거래 풍습, 승려와 무당 복식 등의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다.

혼인과정을 묘사한 희곡인 「동상기(東床記)」에서는 혼례복식이, 여자들의 목소리로 읊은 노래인 이언에서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의 여자복식이 표현되며, 충군을 간 영남지방의 풍습을 기록한 건문기인 「봉성문여」에서는 당시의 지방색이 나타난다. 사실을 서술한 기(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서술한 전(傳) 등의 장르에는 서민들의 복식이 주로 묘사된다. 특히 백의선호의 풍습과 면포 생산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도 복식학계에는 아직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옥 개인의 저술이라는 특성과 희귀한 문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의 성격상, 묘사된 복식을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조선시대의 풍

부한 복식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따라서 이옥의 글을 복식학계에 소개하고, 그의 글에 나타난 복식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인접시대 생존인물의 문집과 회화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은 이덕무,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성대중(成大中, 1732~1809), 조재삼(趙在삼, 1808~1866) 등이 남긴 저술을, 회화는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 신윤복(1758?~1813이후) 등이 그린 당시 풍속화를 주로 참고하였다.

그의 글은 대부분 짧은 소품이고 복식에 관한 내용은 그중에서도 일부가 수록된 관계로, 각 장르나 착용자 신분, 복식 종류에 따라서 관련 내용이 골고루 등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으로 복식을 분류하여 서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 작품에 여러 복식이 표현되는 「동상기」와 이언은 각각 살펴보고, 다른 내용은 크게 차림새, 재료, 특수계층의 복식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II. 「동상기(東床記)」에 나타난 혼례복식

「동상기」는 1791년(정조 15) 왕명으로 노총각 김희집과 노처녀 신씨의 혼인이 성사된 일<sup>6)</sup>을 이옥이 듣고 작성한 글이다. 총 4절로 구성된 희곡으로 육담과 음담패설이 혼재한 구어체 문장에 혼례품·혼례절차·신랑다루기 등의 풍속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다.<sup>7)</sup> 희곡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창작의 여지가 많으나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였고, 배경으로 나타나는 정조의 행차와 진흥정책 등도 『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어사화의 꽃을 본래의 의미와 다른 접시꽃을 사용하고 있다고 세세하게 비판하는<sup>8)</sup> 이옥의 성격을 볼 때, 18세기 혼례복식의 참고자료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복식으로는 제1절에 처가에서 신경을 많이 쓴 신랑의 혼례복식이, 제2절에 나라에서 주선한 노총각과 노처녀의 혼례에 대한 복식이 간략하게 언급되고, 제3절에 주인공인 김희집과 신씨의 혼례복식이 장황한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묘사된다.<sup>9)</sup>

〈표 1〉 「동상기」제3절의 혼례복식

구분	내용	비고	
신랑	복식	예복일습: 複紗角兒烏紗帽, 袷角紫芝色紗冠帶, 一品秩犀角帶, 黑鹿皮好靴子, 紫芝複氈衣(冠帶內供), 三臺僧頭青扇	
신랑	복식	頭飾: 細細涼臺漆笠兒, 單縷網巾, 赤玳瑁貫子 의복: 銀色苧布青道袍, 白苧布中赤莫, 白苧布小氈衣, 生綿紬汗衫, 白苧複禪子, 細布裡衣單禪子, 白苧布筒行纏 足衣: 細作白木新襪子, 鹿皮緞色唐鞋 기타 장신구: 漢布緞草綠腰帶, 豆綠大緞斗里囊子, 朱黃唐絲蝶樣流蘇結, 草綠唐絲細條帶, 紫芝唐八絲緊兒, 青黍皮六分	대부분의 신랑은 草笠을 착용하지만, 신랑나이가 많은 관계로 涼臺漆笠兒로 대체
	치장	白雪馬(青青月乃, 銀葉絲唐鞍粧)	
신부	복식	頭飾: 六釵月子(娘子髻次), 簇頭里, 銀竹節, 於余未, 去豆微 예복: 紅長衫, 金線繡鳳膝眼裙子 의복: 白苧布角支赤衫, 白苧布四幅襖子, 細細北布鮒魚禪子, 眞紅縐紗複裙子, 藍方細細單裙子, 青苧布常着裙子, 上衣三勻(草綠色·松花色·寶羅色, 甲紗熟絹廣月紗等物), 紫芝色三懷粧, 五合無竹伊, 三合無竹伊 足衣: 細白木襪子, 綠質紅眼錦唐鞋 기타 장신구: 瓊光細雙針腰帶, 眞珠扇子	
	치장	金頂轎子	

조정의 대대적인 노총각·노처녀 혼사 주선에도 김희집과 신씨 단 둘이 남게 되자, 나라에서는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니 둘이 혼인하도록 하고, 특별히 선혜청 당상관과 호조판서의 친자녀 혼례와 똑 같이 치르도록 분부한다. 따라서 집안형편이 무척 어려운 신랑신부였음에도, 화려한 혼례복식이 사용된다.

### 1. 신랑복식

혼례복식은 가장 곁에 보이는 예복 뿐 아니라 받침옷과 버선·신발까지 세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신랑복식은 예복인 사모관대를 입는 대례와 평상복 차림으로 갈아입는 대례 후의 복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상기」제1절에서는 호사(好事)가 정승과 같다는 신랑복식으로 자사장복(紫紗章服)이 표현되어 있는데, 혼례에 신랑이 장복(章服)을 입는 풍습은 1788년(정조 12)에 시정의 서민들도 장가갈 때는 차길(借吉)한다는 핑계로 서슴없이 착용한다는 비관<sup>10)</sup>에도 나타난다. 회화에 서도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의 「모당

홍이상 평생도」(1781, 그림 1)와 풍속화첩 중 「신행(新行)」(그림 2)에서 자주색 관복과 사모, 목화를 갖춘 신랑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조혼 풍습이 성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초혼(初婚)시에는 관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동상기」에서도 신부는 15세, 신랑은 14세를 일반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신랑의 대례복은 신랑의 관직 품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sup>11)</sup> 따라서 「동상기」의 주인공으로 관직이 없는 김희집도 장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묘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관복의 색상은 시대와 품계 등에 따라서 자주색·홍색·청색·녹색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므로, 그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동상기」제1절에서는 정승과 같으며 자사장복을, 제3절에서는 자지색 관복[裕角紫芝色紗冠帶]을 입고, 서각대를 1품에 해당된다[一品秩犀角帶]고 품계에 맞게 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이익(李瀾)을 스승으로 삼고 평생 동안 의례를 연구한 안정복이 무인년(1758)에 딸을 혼인시키면서 정한 혼례의식에 “예(禮)에 혼인에는 명복(命服)을 쓴다고 했는데



〈그림 1〉 「모당 홍이상 평생도」 혼인식(부분)  
- 조선시대 풍속화, p. 91



〈그림 2〉 「단원풍속화첩」 신행(부분)  
- 조선시대 풍속화, p. 195

지금 시속에 반드시 일품장복(一品章服)을 쓰니 근거가 있다.”<sup>12)</sup>고 서술한 부분을 보면 18세기에는 1품 관원의 관복이 자색 장복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상기」의 혼사가 이루어진 때는 더위에 장마가 겹쳐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신랑의 예복은 사모와 화(靴)는 물론이고, 관복[冠帶]에 겹창의[複釐衣]까지 서술되어, 혼례의 화려함을 표현하는 이옥의 묘사방식이거나, 무더운 날씨에도 혼례예복은 여러 벌의 옷을 겹겹이 갖추어 입었던 당시의 풍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 신랑과 신부의 일반 의복에 저포가 대부분인 것은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관모를 살펴보면, 원래 신랑은 대부분 초립을 착용하지만, 김희집은 올해 28세인 노총각인 관계로 매우 가느다란 소재로 만든 양대칠립아(涼臺漆笠兒)로 대신하였다고 설명하여, 초립이 어린 남자의 상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랑 의복의 소재는 대부분 저포·사(紗) 등의 얇은 옷감인데, 주머니는 단(緞)이어서 의복과 주머니의 소재를 반드시 같은 옷감으로 갖추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상기」에서는 신랑복식의 대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조선후기에 의전에서 돈을 받고 신랑길복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었고, 의전이 각궁각사(各宮各司)에 신랑길복을 책납하였다는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옷들을 혼례시 무료로 대여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sup>13)</sup>

## 2. 신부복식

신부의 예복은 홍장삼과 金線繡鳳膝眼裙子이다. 홍장삼은 안정복이 딸의 혼례복으로도 언급하였는데, 순의(純衣)에 혼색(纁色)이고 넓은 소매에 옷자락이 긴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4)</sup> ‘金線繡鳳膝眼裙子’는 금색 실로 봉황 스란단을 수놓은 치마로 추측된다. 「동상기」제2절에 절차 대부분을 생략한 혼례지만 신부의 홍상(紅裳)은 이옥에서

빌려서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때, 홍색 치마가 신부의 중요한 혼례복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므로, 금선수봉스란치마가 혼색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사대부가 신부의 경우에는 홍장삼,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홍치마를 언급하였으므로, 신부복식에서는 홍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옥의 경우에도 본인의 딸을 시집보낼 때 옷을 염색하려고 매해 홍화를 심었다는 내용이 있다.<sup>15)</sup>

신부복식에는 머리장식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다리·어여미·거두미가 있고 쓰개로 족두리, 비녀로 은죽질이 언급된다. 어여미와 거두미는 정조실록에도 가채금지시 언급되는데, 명부(命婦)에서는 항상 착용하는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도 혼인시에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16)</sup> 이러한 어여미와 거두미는 현재 머리모양에 대한 호칭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의복이나 장신구와 함께 서술된 것을 보면 혼례 절차에 따라 모자처럼 교체할 수 있는 해당 모양의 머리장식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의복을 보면 저고리와 치마가 모두 여러 벌 등장한다. 저고리는 백저포개끼적삼[白苧布角支赤衫], 백저포네폭유자[白苧布四幅襦子], 초록색·송화색·보라색 상의삼작(上衣三勺), 자지색삼희장(紫芝色三懷粧)으로 6벌이고, 치마는 진홍색 추사겹치마[眞紅縐紗複裙子], 남방세세홀치마[藍方細單裙子], 청저포평상복치마[靑苧布常着裙子]로 3벌이다. 저고리는 백색·초록색·송화색·보라색·자지색 등으로 색상이 다양한 반면, 치마는 진홍색·남색·청색으로 단순한 구성이다.

신부의 속옷으로는 세세북포봉어모양홀바지[細細北布鮑魚褲子], 오합무지기[五合無竹伊], 삼합무지기[三合無竹伊]가 있다. 이들 옷은 한꺼번에 걸쳐 있었을 수도 있고, 절차에 따라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오합무지기와 삼합무지기는 이덕무의 글에 나타난 ‘무족오합칠합(無足五合七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덕무는 짧고 작은 흰

색 치마로 걸치마를 부풀린다고 묘사하였다.<sup>17)</sup> 저고리와 치마가 여러 벌이 언급된 반면 속바지는 1벌만이 언급된 것이 의외로, 조선말기에 여러 벌의 속바지를 겹쳐 입었던 풍습과 대조적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당시에는 하반신을 부풀리는 기능을 속바지가 아니라 무지기치마가 주로 담당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품 중에 어여미와 거두미, 홍장삼, 금선수봉스란치마, 진주선자(眞珠扇子)는 수모에게 세낸 것<sup>18)</sup>이라는 설명이 있어서, 이들이 특별한 행사에만 사용하는 고가의 물품이며, 수모가 일정한 재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종임이 표현된다.

### Ⅲ. 이언(俚諺)에 나타난 복식

이언은 원래 우리나라 민간에서 쓰는 속된 말, 또는 속담을 가리킨다. 이옥은 천지만물에 대한 관찰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남녀의 정이야말로 가식이 없는 진실이라고 보았으며, 그 진실을 재현하는 방법으로써 속담이나 방언과 같은 민간언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19)</sup> 따라서 이언에 수록된 곡(曲)인 아조(雅調)·염조(艷調)·탕조(宕調)·비조(俳調)가 이옥이 창작한 민가이지만,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복식이 묘사되어 있으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아조(雅調)

아(雅)는 향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옥의 생각으로 부인은 아버이를 사랑하

고, 지아비를 공경하고, 집안 살림을 검소하게 하고,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 천성(天性)의 향구적인 것이며, 인도(人道)의 정당한 것이었다. 따라서 아조 17수에서는 갓 시집 온 온화하고 부지런한 부인을 표현하였다.<sup>20)</sup> 이 주인공은 궁체를 단정하게 쓸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시어른에 대한 바른 몸가짐을 당부할 정도로 교양을 갖춘 집안의 출신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집안 살림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인은 동해주(東海紬)라는 옷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취미삼아 한다면 누에를 치고, 초록색 상사단을 쌍침질[雙針]하고 3겹 나비모양으로 곱게 접어서 남편의 귀주머니[耳囊]를 만든다. 남편의 옷을 마름질하면서 “손에도 향내, 옷에도 향내가 난다[手香衣亦香]”고 표현을 하는 조선한 아녀자이다. 홍색 치마는 시택 제사가 곧 있기 때문에 잠시 벗어둔다는 내용으로 나온다. 새택이라도 제사에는 홍색 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검소하고 조심스러워서 남들이 비단 옷도 우습게 여길 때, 농부와 가난한 부녀자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보병의(步兵衣)를 소중히 여기고, 황금색 거북이 수놓인 운문단 이불이 아니라 진홍색 꽃문양 요에 아청색 토주(土紬) 이불을 쓴다고 하였다. 시어머니가 준 예물인 옥동자는 귀해서 유소(流蘇)로 고이 싸서 넣어두고, 옥룡 비녀는 떨어질까 봐 그네를 댈지 못한다고 할 정도이다. 현재 용비녀 유물은 대부분 금동제이지만, 옥으로도 용을 조각하였고 왕족의 상징인 용문양이 당시에도 민간에 퍼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옥동자는 “감히 차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未敢顯言佩]”라는 표현을 볼 때, 노리개로 생

〈표 2〉 「아조」에 나타난 복식

종류	내용
의복	紅裳, 步兵衣
직물	東海紬, 草綠相思緞(남편귀주머니용)
장신구	一雙玉童子(시어머니가 준 예물), 玉龍釵
침구	眞紅花布褥+鴉靑土紬衾

각된다. 이덕무는 부인의 노리개로 정수리를 펜 금동(金童), 자루 없는 은도끼, 합향(合香) 등을 언급하면서, 정수리를 펜 금동(金童)은 요망스런 물건에 가깝고, 자루 없는 은도끼 같은 것은 여자를 상징하는 기물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sup>21)</sup> 안정복도 “시속의 혼례에서는 동퇴연시에 옥들로 깎은 동자를 향좌(香座)에 안치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본뒀으니 실로 요망하다.”<sup>22)</sup>고 하였다. 동자와 도끼는 현재도 기자신앙(祈子信仰)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sup>23)</sup>, 당시에 학자층에서는 이를 요망한 풍속으로 비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염조(艷調)

염(艷)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시에 등장하는 부인은 말랄하고 고집이 세며 옷차림은 화려하다. 남편이 창가(倡家)에 다녀와서 한삼(汗衫)에 연지가 묻어있다고 따지고, 화장과 옷차림에 공을 들이는 한편, 아들을 낳지 못할까 걱정하는 부인을 18수에 걸쳐서 묘사하였다.<sup>24)</sup> 아조의 주인공과는 달리 집안 살림이나 교양에 관한 내용은 없고 몸단장과 남편에 대한 투정, 기자신앙 등으로 구성된다. 상자 안에는 자계(紫纈) 장식 옷이 가득하고, 호남에서 온 참빛과는 여자는 재상가(宰相家)로 착각할 정도로 꾸미고 사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염조의 주인공은 본인의 외모에 자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진다. 일례로 자신의 긴 눈썹은 버드나무 보다 낮고, 화장을 한 모습은 울릉도화(鬱陵桃花) 보다도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유

행[時體]인 침선비(針線婢)들이 조롱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사람들이 유행에 신경을 썼고, 그 흐름은 옷을 만드는 침선비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인은 오랜 시간동안 공을 들여 천도계(天桃髻)를 올려서 족두리를 얹고 화장을 한다. 족두리는 정수리의 비녀를 건드려서 족두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으로도 나온다. 『정조실록』과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등의 내용을 보면 당시 족두리의 형태는 솜을 넣은 것과 가볍게 사용하는 솜을 넣지 않은 봄여름용이 존재하였다.<sup>25)</sup>

정수리의 비녀 부딪치지 마소 족두리가 굴러 떨어지리니 두렵구나, 누군가 와서 보고 나를 노쳐녀라 부를까봐	莫觸頂門簪 轉墮簇頭里 恐有人來看 呼農老處子
---	----------------------------------

이옥의 다른 글을 함께 살펴보면 비녀는 남자의 것은 대부분 ‘簪’, 여자의 것은 ‘釵’로 서술되어 있지만<sup>26)</sup>, 이 시를 보면 여자의 비녀라도 족두리 고정용인 정수리의 비녀처럼 작은 것은 ‘簪’으로 표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족두리는 『동상기』에 혼례식의 아이 하님이 칠보족두리에 도투락댕기를 차려입었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sup>27)</sup>, 족두리가 굴러 떨어진다는 표현 뒤에 노쳐녀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족두리는 화동역할을 하는 여자 어린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혼자의 상징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장법에도 비유가 있어서 복숭아꽃은 천박해 보이고, 배꽃은 너무 차가워 보여서 살구꽃 화장을 한다고 하였다. 꽃에 대한 이옥, 또는 당시 사

<표 3> 「염조」에 나타난 복식

종류	내용
화장	脂粉, 봉선화잎 손톱염색, 치아 먹물염색,杏花粧
頭飾	簇頭里, 天桃髻, 銀魚髻
의복	汗衫(남편의복), 藍方紗上裙+紅抗羅下裙, 角歧衫, 紫纈粧 옷, 蓮峰粉紅裳(아동복)
직물	白苧布(鎭安品), 松金緞(3월), 廣月紗(5월)
장신구	竹節釵, 銀桃·香茄, 梳, 青玳刀
신발	錦草鞋

랍들의 감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봉선화 꽃과 꽃잎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은 물론, 치아가 너무 흰 것이 싫어서 뭍은 먹물을 머금는다는 내용도 나온다. 백색 치아를 가리키는 단어인 ‘호치(皓齒)’가 미인을 뜻하는 관용어로 사용되었지만<sup>28)</sup>, 화려한 옷차림이라도 치아가 눈에 너무 띄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복으로는 서로 다른 색과 소재로 치마를 입는 모습이 눈에 띈다. “남방사로 위치마를 하고 홍항라로 아래치마를 했으니[下裙紅杭羅 上裙藍方紗]”, 홍색이 은은하게 비쳐서 곁에서 보면 남보라빛의 효과를 냈을 것이다. 겹감·안감이 아니라 ‘위치마·아래치마’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홀치마를 겹쳐 입은 모습을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옷감은 월별로 3월에는 송금단, 5월에는 광월사가 제철이라고 하여, ‘봄’이라는 계절로 묶을 수 있는 시기에도 옷감 두께가 달라질 정도의 기온과 취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안 저포가 섬세하고 깨끼적삼[角歧衫]을 지으면 능금(綾錦)처럼 광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아이였을 때 입었던 연꽃봉오리 분홍색 치마를 가장 아낀다고 하여 당시에 여자어린이들이 이러한 모양의 치마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 3. 탕조(宕調)

탕(宕)은 규범에서 일탈하여 막을 수 없음을 말한다. 탕조 15수는 창기(娼妓)의 일로 사람의 정리(情理)가 여기에 이르면 일탈하여 금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므로, 탕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기녀의 목소리로 정인(情人)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sup>29)</sup>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소리에 대한 자랑과 몸단장, 기방손님의 묘사, 연인에 대한 타박이다.

주인공은 머리카락[鬢]에 동백기름을 바르고, 입술에는 홍색 연지를 발라서 화장을 한 모습이다. ‘六鎮好月’은 함경북도 육진에서 생산된 좋은 다리[月子]로 추정되는데 머리 쪽마다 주사로 점찍었다는 대목이 있어, 다리의 주사점(朱砂點)에 일정한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머리장식으로 아청색 공단 가리마가, 비교적 고가의 장신구로는 삼천주가 등장한다.

기방 손님들의 옷도 표현되었는데, “협수는 모두 포교, 홍의는 정히 별감, 대협은 청수피[夾袖皆捕校 紅衣定別監 大俠青綉皮]”라는 대목이 있어서, 당시에 협수는 포교, 홍의는 별감을 표시하는 상징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감의 복(服)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청단령이고, 『대전통편(大典通編)』(1785)에는 『속대전(續大典)』(1746)의 내용을 따라 홍직령으로 지정되어 있다.<sup>30)</sup> 따라서 「탕조」에 나타난 별감의 복식은 규례에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전에는 수복(守僕)도 홍직령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탕조」에서 홍의는 별감만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 착용 실태에는 차이가 있었거나 기방에서 수복의 영향력은 별감보다 적었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회화에서 별감을 찾아보면 신윤복의 「주사거배(酒肆舉盞)」·「야금모행(夜禁冒行)」등에 등장하는 홍의 차림의 남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자건(紫巾)이 아니라 임금의 교외 행차시에만 착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황초립(黃草笠)이어서 규례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

〈표 4〉 「탕조」에 나타난 복식

종류	내용
화장	冬柏油(鬢), 紅脂(脣)
頭飾	六鎮好月, 貢緞鴉青色加里麻
의복	夾袖(捕校), 紅衣(別監), 青綉皮(大俠)
장신구	銀指環, 玉扇錘, 金剛山畫扇, 三千珠, 端午扇



하다.

#### IV. 차림새

##### 4. 비조(悱調)

비(悱)는 원망함이 심한 것을 이른다. 이옥은 세상 인정이 아(雅)에서 한번 정상을 잃으면 염(艷)에 이르고, 염은 반드시 탕(宕)으로 흐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상에 탕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원망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진실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정도가 지나쳐 심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비조 16수에는 난봉꾼 아내의 심한 원망과 한탄이 표현되어 있다.<sup>31)</sup> 정확한 신분은 알 수 없고, 남편의 분탕질로 집안 살림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복식도 별로 표현되지 않는다.

조신한 아조, 화려한 염조, 냉소적인 탕조의 주인공에 비하여, 비조의 주인공은 남편의 구박에 삶이 힘들 뿐이다. 따라서 내용은 대부분 신세한탄으로, 빗질하는 틈에 남편은 누구를 주려고 하는지 옥비녀를 훔쳐가고, 시집을 때 입은 홍색 치마[紅裙]는 수의(壽衣) 지으려고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투전 빛을 갚으려고 울면서 파는 모습이 나온다. 시집을 때 입었던 옷을 수의로 사용한 예는 이덕무가 옛날에는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언급하는 부분에도 나타난다.<sup>32)</sup> 이덕무가 이옥 보다 19살이 많고, 20세기초까지 저고리의 단소화가 계속 진행된 것을 생각하면, 이옥이 비조를 지었을 때 저고리는 수의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품이 자유로운 치마는 수의로 사용하는 풍습이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1. 백의(白衣) 선호

이옥은 충군으로 1799년(기미) 10월 18일에서 다음해인 1800년(경신) 2월 18일까지 118일간 경상도 삼가현, 일명 봉성에 머물면서<sup>33)</sup> 견문한 일들을 글로 남겼는데, 이를 친구인 김려(金鑣, 1766~1822)가 「봉성문여」라는 제목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영남지방의 백의(白衣) 선호 풍습이 자세하게 소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색(靑色)을 숭상하여 사람들이 대부분 청의(靑衣)를 입는데 유독 영남 우도만은 남녀가 모두 백의를 입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청색을 숭상하여 백성들이 대부분 청의(靑衣)를 입는다.** 남자는 겹(裕)과 납(納)이 아니면 일찍이 이유 없이 백의를 입지 않고 여자들은 치마를 소중히 여기는데, 더욱 백색을 꺼려서 홍색과 남색 이외에는 모두 청색 치마[靑裙]를 두른다. 의(衣)는 한 가지 색이 아니지만 삼년복이 아니면 또한 일찍이 백색 저고리와 치마[白衣裳]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영남 우도는 남녀 모두 백색 옷을 입으며 아녀자들은 비록 갓 시집은 사람이라도 역시 백색 저고리와 백색 치마[白衣白裳]를 입는다.**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짧은 아녀자 대부분이 다리[鬘]를 대어 꾸미지 않고 목면(木棉)으로 만든 짧은 백색 치마[白短裙]를 입은 것을 보고 과부인가 의심했는데, 모두 갓 시집와서 치장한 것이었다. 오직 기녀와 무녀만이 청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 그 사람들이 대개 청색을 천시하고 백색을 숭상하기 때문이다.<sup>34)</sup>

이 내용에는 복식의 색상에 지역차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인상적이다. 이옥은 1795년(정조 19) 9월에도 충군 명령으로 3일간 삼가에 머물렀는데, 당시에 한양에서 출발하여 경기·충청·전라 지방을 거쳐 영남 우도에 도착한 일정을 일자별로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sup>35)</sup> 따라서 그가 거쳐 갔던 지방에서는 백의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지 않았기 때문

<표 5> 「비조」에 나타난 복식

종류	내용
의복	紅裙, 三升襪子
장신구	玉簪

에, 영남 우도만의 독특한 풍습이라고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이옥이 가체를 하지 않고 백색 치마를 입은 여자들을 보고 과부로 생각했던 것도 그가 알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 아직 가체를 하는 풍습이 일반적이었고, 상중에 있는 사람이나 과부만이 백의를 일상적으로 입었던 까닭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청색을 영남 우도에서는 오히려 천시하여 기녀와 무녀만이 사용한다는 점도 의외이다. 청색과 남색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서술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의복색으로 청색을 선호하고 백색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옥의 설명은 조선말기의 전국적인 백의 숭상 풍습과 오히려 반대가 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1738년(영조 14)의 우참찬 이덕수의 상소<sup>36)</sup>를 근거로 백의 선호 풍습은 개화기까지 이어진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덕수의 상소에 대한 영조의 하교에도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이 남색(藍色) 옷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하천(下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색 옷을 입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영조는 이러한 풍습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1823년(순조 23)의 기사에도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생전에 우리나라 사람은 평상시에도 백색 옷을 입는다고 말했다는 내용<sup>37)</sup>이 있는데, 송시열의 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금은 평상복으로 흰 옷을 입지 않는다는 의견이 없다. 따라서 영조의 하교는 백색금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반증으로 생각되어 조선후기에도 백의 선호 풍습이 계속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옥의 글에 따르면 시대별로 옷 색이 청색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옥의 설명에 따르면 이처럼 영남지방에서는 백의를 선호하였는데, 신부의 신행(新行)을 따라가는 여중은 늙었더라도 홍군(紅裙)을 입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비를 만나면 바지와 버선이 모두 붉게 물들어서 길가 사람들의 옷음을 사기도 하였다.<sup>38)</sup> 따라서 당시에는

이염(移染)이 되는 현상이 흔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백색으로 가득한 풍경에서 홍색 치마는 신행을 더욱 눈에 띄게 하여서 혼례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 2. 시장풍경

이옥은 1799년에 봉성에 가서 머물 때 시장과 가까운 주막에 방을 얻었다. 18세기는 장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로 사족의 경제생활도 호혜적 선물교환 보다 시장 거래가 압도적일 정도로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다.<sup>39)</sup> 따라서 장날이면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고, 이옥은 이처럼 북적거리는 장터를 글로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세세한 묘사와 열거를 특징으로 하는 이옥의 문체가 잘 나타난다. 그중에는 사람들의 옷차림새를 일일이 묘사한 부분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sup>40)</sup>

넓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 위에는 포(袍)를 입고 아래에는 치마[裳]를 입은 사람, 좁은 소매에 자락이 긴 옷을 입은 사람, 좁은 소매에 자락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 나제립(羅濟笠)에 흉복(凶服)을 입은 사람, 승포(僧袍)와 승笠(僧笠)을 쓴 승려, 평량립(平涼笠)을 쓴 사람이 있다. 여자들은 모두 백색 치마[裙]를 입었는데, 간혹 청색 치마를 입은 자도 있다. 의대(衣帶)를 갖춘 어린아이도 있다. 남자의 립(笠)은 자용모(紫獬帽)를 쓴 사람이 옆에 여덩아홉이며, 향(頂)을 두른 사람도 옆에 두셋이다. 폐도(佩刀)는 어린아이도 차고 있다. 서른 살 이상인 여자는 모두 흑모(黑帽)를 썼는데, 백색인 사람은 상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 글에는 남자·여자·어린아이·승려 등이 모두 어우러진 활기찬 장터 모습이 잘 나타난다. 그중에 “위에는 포를 입고 아래에는 치마를 입은 사람[有衣上袍下裳者]”은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남자의 복식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덕무의 “비록 날씨가 춥더라도 단유(短襦)를 위에 입지 말라.”<sup>41)</sup>는 훈계를 참고하면 철릭이나 긴 포(袍)를 입은 다음에 폭이 넓은 저고리나 짧은 포를 위에 입을 때,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한편으로 남자의 의복이 소매 너비가 다양하고

자락의 유무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과, 자용모를 대중적으로 많이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자들은 백의 선호 풍습에서 밝혔듯이 대부분 백색 치마를 입고 간혹 청색 치마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 30대 이상인 여자들은 모두 흑모를 쓰고, 상중인 사람은 백색을 착용하여 구분을 하였다고 한다. 흑모는 현존하는 유물과 대조해보면, 조바위·남바위 등이 연관될 수 있겠으나 이들의 관계성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머리모양

이옥은 「봉성문여」에서 여자들의 머리모양으로 서울 유녀(遊女)들의 천도계(天桃髻)와 등자계(鏡子髻)를 언급하였고, 영남지역 젊은 아녀자들의 생채계(生菜髻)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영남의 젊은 아녀자들에게는 생채계가 있다. 그 방식은 머리에 다리[鬘]를 대지 않고, 다만 자신의 머리카락을 빗질하되 땅지 않으며, 대강 휘어진 끈을 더하여 이마 위에 교차하여 묶고서는, 서로 고운 머리모양이라고 자랑한다. 내가 볼 때에는 그 모습이 해산하고 갓 일어난 것 같고, 목욕하고 빗질하지 않은 것과 같으며, 사내에게 매 맞고 버림을 받아 울면서 대충 머리를 추슬러 놓은 것 같았다.<sup>42)</sup>**

조선후기 이전에 여자 머리모양의 명칭과 그 제작방법이 서술된 것은 드문 경우로, 『정조실록』에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낭자쌍계(娘子雙髻)와 사양계(絲陽髻)<sup>43)</sup>, 1809년(순조 9)에 엮은 빙허각이씨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 중국의 머리 명칭이 언급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옥은 호기심이 많고 뚜렷한 주관을 가진 성격답게, 머리손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그 모양이 좋다고 자랑하는 풍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리도 사용하지 않고 머리카락도 땅지 않고 단순하게 끈만 사용하는 방식은 백의선호의 풍습과 함께 영남지역의 소박한 모습으로 보인다. 서울 유녀의 머리모양으로 언급된 천도계는 엄조에 일반 부인이 하는 경우도 보이는

데, 팔이 타락[酥]처럼 된다고 묘사하였으므로 노력이 무척 많이 들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4. 성주의(星州衣)

「봉성문여」에 따르면 영남지방에서는 고용살이를 하는 자가 세밀이 되면 '성주의'라고 하는 새로 만든 솜옷을 한 벌씩 받는 풍습이 있었다.<sup>44)</sup> 길이는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고 소매길어도 한팔 반이며, 넓이는 팔 열 개가 들어갈 정도로 매우 넓고 크고 길고 두꺼운 옷이었다. 따라서 성주의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겉옷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영남 사람들은 좋은 의복을 반드시 '성주의에 대구고(大邱袴)'라고 말했다는데, 이옥의 설명에 성주 사람들의 상의가 모두 길고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고 역시 성주의처럼 크고 두꺼운 옷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덕무가 비난하듯이 여자 저고리는 짧고 좁아지는 시대였으나<sup>45)</sup>, 일반적으로는 아직 큰 옷이 좋은 옷으로 선호되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명칭에는 당시에 영남지방에서 성주와 대구가 물산이 풍부할 중심지였던 것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 V. 복식 재료

#### 1. 목면(木棉)

이옥은 1795년 흥군으로 한양에서 영남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9월 28일에 영남 자치(紫峙)에서 목화 따는 것을 보고 면포의 제작 과정을 종자(從子)의 입을 빌려 12단계로 자세하게 서술하였다.<sup>46)</sup> 그리고 목화가 꽃이 되는 과정은 9단계로, 면포가 옷이 되는 과정은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면포의 명칭으로 '無名'도 언급된다. 옷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잣물로 가볍게 하기 > ② 벌을 쪼어 표백하기 >
- ③ 염색하여 화사하게 하기 > ④ 풀 먹여서 정돈하기 > ⑤ 돌다듬이질하여 빛나게 하기 > ⑥ 폭과

길을 재어 고르게 하기 > ⑦ 마름질하여 한도를 정하기 > ⑧ 바늘 꿰기 > ⑨ 실로 연결하기 > ⑩ 인두질하여 평평하게 하기 > ⑪ 물을 뺐어 축축하게 하기 > ⑫ 다림질하여 곧게 하기

이옥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목화를 재배하는 것은 남녀가 반반씩 일을 부담하지만 꽃에서 옷을 완성하는 과정은 여자가 전적으로 담당하니 여자도 부지런하다고 평한다. 또한 4월에 씨를 뿌려 9월에는 옷을 만드는 백성들의 공을 칭송하며, 치라방로(哆囉嚨嚨)를 귀히 여기고 면포를 천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옥이 설명한 여러 단계의 생산과정은 설명의 자세한 정도에 가감이 있으나 나주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무명인 새골나이의 경우<sup>47)</sup>와 동일하다.

그러나 생산기간은 차이가 많다. 20세기 중반에는 목화씨를 빼서 제직을 할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리고, 현재는 무명 2필을 두 달에 걸쳐 제직한다고 하였는데<sup>48)</sup>, 이옥의 글에 따르면 목화꽃이 떨어진지 5일이 지나면 장에서 새 면포를 관다고 하여, 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생산은 각 단계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sup>49)</sup>

영남지방은 당시 목화의 주재배지로 이옥이 충청도에서 만난 한 노인은 '호남 사람은 영남의 솜옷을 입고, 영남 사람은 호남의 소금을 먹고 산다.'<sup>50)</sup>고 표현하였다. 즉 영남과 호남의 주생산품을 비교해보면 영남은 솜, 호남은 소금이다. 그런데 1751년(영조 27)에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지리서인 『택리지(擇里志)』에는 영남과 호남이 모두 목화재배에 적합하다고 하여<sup>51)</sup>, 그 사이에 목화의 주경작지역에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규합총서』에서도 목화는 영남이 으뜸이라고 서술하여<sup>52)</sup> 이 시기에 목화의 주산지인 영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옥은 소품집 「백운필(白雲筆)」에서는 중국역사서를 인용하여 목면의 기원을 살펴보고, 문익점의 우리나라 전래설과 그 인척이 만든 취자거(取子車)인 씨아[絞車], 소사거(纜絲車)인 물레[文來

車]를 소개하였다.<sup>53)</sup> 그런데 물레의 유래에 대하여 심재(1722~1784)의 글에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물레 만드는 법을 배워서 전하였으며, 문익점이 들여왔기 때문에 '文來'라고 부른다고 하였고<sup>54)</sup>, 조재삼은 문익점의 큰 아들인 래(萊)가 만들었기 때문에 '文萊'라고 부른다는 설과 『고려사』의 문익점 장인의 제작설을 모두 소개하여<sup>55)</sup> 당시에도 여러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면(紬棉)이 귀하고 갓옷과 갈포옷도 드물기 때문에, 직조를 하고 솜을 만드는데 오직 초면(草棉)에 의지한다고 하여, 당시에 초면으로 만든 직물이 가장 대중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근래에는 흑목면(黑木棉)이 있어서 염색하지 않아도 아색(鵝色)과 같은 색이 난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흑목면은 염색의 수고를 덜 수 있으니 획기적인 사례이지만 동시대의 다른 글에 크게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소문으로 끝나거나 잠시만 유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56)</sup>

## 2. 가짜 물건

시정의 협잡꾼 이야기인 「시간기(市奸記)」와 사기꾼 이홍의 「이홍전(李泓傳)」에는 시장에서 복식 재료를 속여 파는 모습이 등장한다. 시골사람들이 주로 사기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수법이 교묘해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서울사람도 속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서대문의 큰 시장은 가짜 물건을 파는 자들의 소굴이라고 하였다. 잘하면 10배에서 100배까지의 이윤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든 종류는 <표 6>과 같다.<sup>57)</sup>

내용을 보면 백철과 백동을 은으로, 양각을 화대모와 황대모로, 주식토를 한중향으로, 조서피(臊鼠皮)를 회서피(灰鼠皮)로, 담비가죽[貂]을 문광피(文獾皮)로, 황구호(黃狗毫)를 이리꼬리[狼尾]로 유사하게 만드는 가공기술이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조재삼의 글에도 제주에서 호랑이 뼈를 끓여서 위조 대모갓끈을 만드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다.<sup>58)</sup>

<표 6> 시장에 유통된 진품과 유사품

진 품	銀	花玳瑁 黃玳瑁	漢中香	灰鼠皮	文獺皮	狼尾
유사품	白鐵 白銅	羊角	朱埴土	臊鼠皮	貂	黃狗毫

하지만 담비가죽도 값싼 물건이 아니어서 성대 중의 글에는 담비 꼬리의 가격이 은이나 인삼과 맞먹을 정도였고, 1789년(정조 13)에 담비가죽으로 만든 만선(萬緞)은 금지하고, 담비 꼬리를 사용하던 것을 족제비 꼬리로 대신하도록 명을 내릴 정도로 그 폐단이 심했다는 내용이 있다.<sup>59)</sup> 따라서 18세기에는 문광피가 은이나 인삼 정도의 가치를 지닌 담비가죽보다도 훨씬 귀중품이었으며, 문광피 > 담비가죽 > 족제비가죽 순으로 가죽의 가치가 매겨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VI. 특수계층의 복식

### 1. 승려

이옥은 1793년(계축) 가을에 3명의 일행과 4박

5일 동안 북한산으로 유람을 가면서 200여명의 승려를 눈으로 보고, 그 중 10여명과는 대화도 나누었다. 절에서도 이들을 묵으면서 견문기인 『중흥유기(中興遊記)』에 승려의 복식을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하였다.<sup>60)</sup>

승려의 기본적인 옷은 ‘오(襖)’로 표현된다. 색상은 흑색계열인 조색(皂色) 외에 청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는 2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대나무를 그대로 엮은 것과 대나무 껍질만을 짜서 만든 것을 소개하였는데, 같은 대나무를 사용하더라도 가공 상태에 구분을 두어 모자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 눈에 띈다.

18세기 풍속화 「점 보श्य」(그림 3)<sup>61)</sup>에는 이옥의 설명에서 대나무를 엮어 만든 단통모(短桶帽)로 추측되는 모자와 흑색 염주를 착용한 인물이 등장한다. 왼쪽의 인물은 고깔과 가사를 착용

<표 7> 『중흥사 유기』에 나타난 승려복식

종류	내용
衣	종류: 布襖, 靑緜布襖, 皂布直裰襖 소매: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함
冠	<b>대나무를 엮어 만든 것:</b> 短桶帽, 布梁簷巾, 蔽陽笠 <b>대나무 껍질을 짜서 만든 것:</b> 蓑笠(笠篋이 있어서 絲笠과 비슷하고, 위는 향아리와 비슷하며, 꼭대기는 餅 주둥이와 비슷함)
帶	絲條: 간혹 홍색을 착용하는 사람은 玉圍·金圍를 모자에 붙이기도 함
軍職에 있는 사람	鴉衣 / 鐵琅璫 笠氈: 꼭대기에는 紅氈를 나무깎 靑錦俗: 허리에 착용하며 엉덩이까지 늘어뜨림
염주	대부분은 옷질한 나무이고, 가난한 사람은 울무로 만든 것임
袈裟	형태: 보자기와 비슷한데 타원형이며, 비늘을 잇듯이 만들 좌우에 ‘月光菩薩’이라고 하는 繡字를 붙임. 月光菩薩에는 紫·綠·碧 3條를 늘어뜨림 제작방법과 의미(승려의 설명): <b>바느질에는 법도가 있고, 길이는 정해진 치수가 있고, 제작하는 데에는 기탁[萬]하는 바가 있어서,</b> 감히 잘못되게 할 수도 없고, 감히 함부로 할 수도 없음. 여러 부처님들이 보호해주는 바요, 지극한 이치가 갖추어진 바임 僧伽寺(북한산의 절)에서 紅緜布를 보았음



〈그림 3〉 「점 보셔요」(부분)  
- 조선시대 풍속화, p. 216



〈그림 4〉 「사계풍속도병」제1폭(부분)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 p. 148

한 모습이므로 승려임이 쉽게 구분되나, 오른쪽의 인물은 악기를 두드리는 모습과 모자의 모양, 머리카락을 기른 모습 등으로 단순히 거사(居士)로 추측되어 왔다. 이옥의 「봉성문여」에도 거사는 사당(社黨)의 우두머리로 단지 소고(小鼓)를 두드리며 엽불만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은 김홍도의 「사계풍속도병(四季風俗圖屏)」〈그림 4〉<sup>62)</sup>에 더욱 잘 드러나며, 남자의 손을 끌어당겨 온갖 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옥의 사당 설명<sup>63)</sup>처럼 함께 있는 여자들이 구경꾼들을 잡아당기는 모습으로 볼 때 「사계풍속도병」의 이러한 차림의 남자는 사당의 거사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중흥유기」의 승려복식 설명을 감안하면 〈그림 3〉의 오른쪽 인물이 절에 기거하는 승려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승려복식 중에 대(帶)에 있어서는 홍색을 착용하는 사람 중에는 모자에 옥권·금권을 붙이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기서 권(圈)은 권자(圈子)·관자(貫子)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권자는 일반적으로 품계가 있는 양반의 신분을 표현하는 물건이었지만, 옥권자와 금권자의 사용이 승려에게 제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자가 망건의 부속이 아니라 모자의 장식으로 사용된 것도 특이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홍색은

높은 직위나 고가의 색상으로 인식되는 만큼, 홍색 띠와 옥권·금권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권자의 용도를 더욱 다양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군직에 있는 승려는 일반 승려와 다른 복장을 착용하였는데, 흑색 옷에 전모, 전대, 금속장식까지 착용하였으니 수행자 보다는 일반 군인과 유사한 외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가사는 타원형인 것이 현재의 것과 차이가 있으며, 월광보살에 늘어뜨린 끈은 영자(纒子)인 것으로 보인다. 승려의 설명을 통하여 당시에 이미 가사의 제작방법 정형화와 일정한 의미부여가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무당

영남지방에서는 작은 질병이 있어도 반드시 무당을 부를 정도로 굿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옥은 무당을 미신이라고 비난하며 무척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영남지방에서 본 매구굿[魅鬼戲]·무당굿[巫祀] 등의 굿판이 벌어지는 모습은 자세하게 표현하였다.<sup>64)</sup> 매구굿을 하면서 쌀과 돈을 요구하는 것을 걸공(乞供)이라고 하는데, 매구굿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복식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표 8〉 무당복식

굿의 종류	복식
魅鬼戲	13인 - 紅掛子, 氈笠(紙花 삼입)
	乞供 : 1인 - 黑衣, 氈笠, 大靑旗
	1인 - 紙笠(鷺羽紙花 삼입), 黃襖, 扇
	1인 - 笠(孔雀羽 삼입), 白襖
	5인 - 氈笠, 黑袂, 북
	동자 2인 - 氈笠(紅氈부착), 黑袂
	동자 2인 - 氈笠, 팽과리
	3인 - 氈笠, 징
	1인 - 笠, 白襖, 大竹筍
	1인 - 狗皮帽, 短衣, 烏鎗
巫祀	紅衣, 藍帶, 叢鈴(왼손), 紙籬(오른손)

매구굿의 경우 머리에는 대부분 전립을 썼고, 백로 깃털과 공작 깃털을 꽂은 갓과 개가죽모자도 보인다. 복식의 색상은 매구굿은 모두 홍색이며, 걸공은 대부분 흑색인데 황색과 백색이 약간 사용되었다. 이옥은 의복에서 의(衣)·오(襖)·협(袂)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의적인 표현인지 일반적으로 통용된 것인지 다른 자료와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걸공은 '걸공'·'걸량'으로도 부르는 걸립(乞粒)으로, 걸립패들은 노래와 춤, 무동 태우기 등의 재주를 보이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곡식과 돈을 모았는데<sup>65)</sup>, 이옥이 묘사한 걸공풍경에는 현재의 12발 상모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소품이 보인다.

북과 팽과리, 징을 든 사람은 모두 **머리에 1길 [丈] 정도의 백색 천을 드리웠고**, 상양(商羊)이 뛰듯이 걸으며 징과 팽과리와 북을 치면서 머리를 흔들면, 머리 위에 흰 무리가 생겨 수레바퀴처럼 보이는데, 이를 '중피(衆皮)'라고 한다. 모두 광장을 돌며 뛰놀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추는데, 징과 팽과리와 북이 조금도 쉬지 않고 울린다. 얼마 후 **백로 깃털의 갓을 쓴 사람은 홍이(紅氈)를 한 동자를 어깨 위에 얹고 달려가는데, 이 동자는 어깨를 밟으며 춤을 춘다.** 이것을 '동래무(東萊舞)'라고 한다.

백색 천의 길이인 1길은 성인 남자의 키인 8~10자 정도이고, 1발은 5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농악에서 많이 사용하는 12발 상모 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하지만 1명이 아니라 북·팽과리·징을 든

사람이 모두 착용하므로 흥을 돋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였을 것이다. 걸공에서 백로 깃털, 홍이 등으로 눈에 띄는 장식을 한 어른과 동자는 동래무라는 춤을 담당하는 하나의 팀이 된다. 일행 중에서 구분되는 복식을 착용한 사람들이 눈에 띄는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이다.

무당굿의 무당복식은 홍의와 남색대로 간단하며, 매구굿과 무당굿 모두 무당복식은 홍색을 기본 배색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Ⅶ. 맺음말

이상으로 이옥의 글에 나타난 18세기 복식문화를 살펴보았다. 이옥은 문체반정의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와 처벌 속에서도 자신의 문체를 바꾸지 않았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묘사에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그의 글에는 복식에 관한 서술이 일반적인 양반 사대부의 경우 보다 월등히 많아서, 복식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그의 글에서 언급된 복식의 주요 특성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노총각과 노처녀의 혼인 과정을 묘사한 희곡인 「동상기」에서는 신랑의 예복은 자주색 관복, 신부의 예복은 홍장삼이 묘사되었는데, 서각대를 품계에 맞게 언급을 하고 시속에 일품장복(一品章服)을 쓴다는 당시의 서술 등을 통하여 18세기에는 1품 관원의 관복이 자색 장복이었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소략하게 혼례를 할 경우에 신부는 홍치마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홍색은 신부복식에 중요한 색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여미와 거두미가 의복이나 장신구와 함께 언급되어, 이들이 머리모양에 대한 호칭 뿐 아니라, 혼례 절차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해당 모양의 머리장식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여자들의 목소리로 읊은 노래인 아조·염조·탕조·비조에서는 각각 다른 성격과 상황에서의 여자복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중에 족두리는 굴러 떨어진다는 표현 뒤에 노처녀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족두리가 혼례식의 아이 하님이나, 기혼자만 할 수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색과 소재로 반투명한 치마를 겹쳐 입고, 혼례에 입었던 신부의 홍색 치마를 본인의 수의에 사용한다는 묘사도 보인다. 저고리는 단순화되어 수의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품이 자유로운 치마는 수의로 사용하는 풍습이 계속 남아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차림새로는 영남 우도의 백의 선호 풍습이 눈에 띈다. 다른 지방은 청색을 선호하는 반면 영남 우도만이 백의를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선시대의 백의 풍습과 다른 것이어서 시대별 선호색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여자들의 머리모양으로는 서울 유녀들의 천도계와 등자계, 영남지역 젊은 아녀자들의 생채계가 자세히 소개되었다. 생채계는 매우 간단한 머리모양이어서 백색선호의 풍습과 함께 영남지역의 소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재료면에서는 영남지방의 신속한 면포 생산과정이 소개되었고, 값비싼 가죽이나 귀금속을 위조품이나 대체품으로 속여 팔던 시장풍경과 세부적인 예시를 볼 수 있다.

특수계층의 의복으로 승려 복식 중에 단통모, 옥권·금권을 붙인 모자 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삿갓·송낙 외에 다양한 모자가 있었던 것

으로 생각된다. 군직에 있는 승려는 흑색 옷에 전모, 전대, 금속장식 등으로 군인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하였다. 가사의 제작방법과 의미에 대한 정형화가 이루어진 모습도 볼 수 있다.

그의 글은 대부분 소품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짧은 단상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옥의 글에는 엄격한 사대부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복식들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18세기 조선시대 복식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당시 문헌의 발굴과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추후 다른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수반되면 당시의 복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정조실록, 16년(1792) 10월 19일(갑신).
- 2) 이옥 (2009 a), (완역) *이옥 전집 1*,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 6.
- 3) 이옥 (2009), (완역) *이옥전집 1-5*,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 4)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문학계에는 '이현우 (2003), 李錡 小品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진 (2003), 李錡 文學와 明清 소품, *고전문학연구*, 23 : 민속학계에는 '김근태 (1999), 李錡의 「鳳城文餘」 연구 : 봉성의 풍속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8 : 박경신 (1995), 『鳳城文餘』에 실린 巫歌관계 자료의 의의, *구비문학연구*, 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옥의 글에 실린 꽃·담배 등의 소재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송호빈 (2010), 18·19세기에 보이는 꽃의 생태에 대한 관찰과 한문학비평의 한 양상, *고전과 해석*, 8 : 김재후 (2008), 「담배」를 제제로 한 조선후기 假傳文學 작품의 비교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이옥 (2009 b), (완역) *이옥 전집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p. 417-423. 俚諺 三難.
- 6) 정조실록, 15년(1791) 6월 2일(을사).
- 7) 이옥 (2009 a), *op. cit.*, pp. 20-21.
- 8) 이옥은 어사화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하는 해바라기인 黃蜀葵에서 그 의미가 유래하였는데, 실제 사용되고 있는 모양은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의미는 전혀 다른 접시꽃인 蜀葵花이며, 축규화의 열매와 향, 용모 등을 두루 살펴보아도 다른 꽃들 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일일이 서술하였다(이옥 (2009 a), *op. cit.*, pp. 411-413. 論·說·解·辨·策 蜀葵花說.).
- 9) 이옥 (2009 b), *op. cit.*, pp. 450-475. 戲曲-東床記.



- 10)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신묘). 則雖男人之章服, 塗人耳目者, 市井白徒之嫁娶, 近俗稱以借吉, 帽袍品帶, 乃敢無難服着.
- 11) 신혜성 (2005), 韓國과 中國의 傳統婚禮服飾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2.
- 12) 안정복 (2008), *신편 국역 순암집 3* 민족문화추진회 역, 과주: 한국학술정보, p. 116. 卷之十四 雜著 婚禮酌宜.
- 13) 이주영 (2009), 18~19세기 의전(衣塵)의 영업 활동과 상권 변동, *복식*, 59(8), pp. 41-43.
- 14) 안정복 (2008), *op. cit.*, pp. 122-123. 卷之十四 雜著 婚禮酌宜.
- 15) 이옥 (2009 c), *(완역) 이옥 전집 3*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서울: (주)휴머니스트 출판그룹, p. 383. 白雲筆 癸-談艸.
- 16)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신묘).
- 17) 이덕무 (1980), *청장관전서 VI*, 민족문화추진회 역,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26.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 18) 이옥 (2009 b), *op. cit.*, pp. 471-472. 戲曲-東床記.
- 19) 이옥 (2009 a), *op. cit.*, p. 20.
- 20) 이옥 (2009 b), *op. cit.*, pp. 424-428. 俚諺 雅調.
- 21) 이덕무, *op. cit.*, p. 127.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 22) 안정복, *op. cit.*, p. 126. 卷之十四 雜著 婚禮酌宜.
- 23) 백영자 (1996),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p. 460. : 국립민속박물관 편 (2012), “祈子”, *한국민속신앙사전*, 웹사전.
- 24) 이옥 (2009 b), *op. cit.*, pp. 429-434. 俚諺 艷調.
- 25) 김지연, 홍나영 (2010), 『이재난고』에 나타난 18세기 족두리의 제법 및 사용, *복식*, 60(8), p. 90. :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신묘).
- 26) 이옥 (2009 b), *op. cit.*, pp. 368-372. 傳 張福先傳.
- 27) *Ibid.*, p. 473. 戲曲-東床記.
- 28) 啗齒가 아름다운의 표현으로 사용된 예는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茶山詩文集』, 김옥(金垆, 1580~1658)의 『潛谷遺稿』등에서 볼 수 있다.
- 29) 이옥 (2009 b), *op. cit.*, pp. 435-439. 俚諺 宕調.
- 30) 단, 별감은 大小朝儀에는 녹색, 교의 動駕시에는 홍색 칠력을 착용한다(경인문화사 편 (1992), *대전통편*, pp. 74-76.).
- 31) 이옥 (2009 b), *op. cit.*, pp. 440-444. 俚諺 悽調.
- 32) 이덕무, *op. cit.*, p. 123.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 33) 이옥 (2009 b), *op. cit.*, p. 166. 文餘1-鳳城文餘 追記 南征始末.
- 34) *Ibid.*, p. 51. 文餘1-鳳城文餘 白衣裳.
- 35) 이옥 (2009 a), *op. cit.*, pp. 342-345. 南程十篇 敘文.
- 36) 영조실록, 14년(1738) 8월 16일(병신).
- 37) 순조실록, 23년(1823) 6월 25일(임술).
- 38) 이옥 (2009 b), *op. cit.*, p. 91. 文餘1-鳳城文餘 老婢紅裙.
- 39) 이현창 (2010), 조선왕조의 經濟統合體制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선후기 제정파 시장*,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 163.
- 40) 이옥 (2009 b), *op. cit.*, pp. 109-110. 文餘1-鳳城文餘 市記.
- 41) 이덕무, *op. cit.*, p. 22. 士小節 卷之一 士典 服食.
- 42) 이옥 (2009 b), *op. cit.*, p. 87. 文餘1-鳳城文餘 生榮髻.
- 43) 정조실록, 12년(1788) 10월 3일(신묘).
- 44) 이옥 (2009 b), *op. cit.*, p. 118. 文餘1-鳳城文餘 星州衣.
- 45) 이덕무, *op. cit.*, p. 123. 士小節 卷之六 婦儀 服食.
- 46) 이옥 (2009 a), *op. cit.*, pp. 342-344. 記 南程十篇 敘文. : *Ibid.*, pp. 371-374. 記 南程十篇 棉功.
- 47) 심연옥 (2003), *나주씻김놀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pp. 48-251.
- 48) *Ibid.*, pp. 252-257.
- 49) 이옥의 글에도 織造에 공임을 주고 맡겼던 예가 보인다(이옥 (2009 b), *op. cit.*, p. 135. 文餘1-鳳城文餘 愛琴供狀.).
- 50) 이옥 (2009 a), *op. cit.*, p. 348. 記 南程十篇 敘文.
- 51) 이중환 (2005), *택리지*, 이민수 역, 서울: 평화출판사, p. 191.
- 52) 빙허각이씨 (2008), *閨閣叢書*, 정양완 역, 과주: 보진재, p. 156.
- 53) 이옥 (2009 c), *op. cit.*, pp. 376-377. 白雲筆.
- 54) 심재 (2009), *송천필담 2*, 신익철 외 역, 서울: 보고사, p. 90.
- 55) 조재삼 (2008), *교감국역 송남잡지 05*, 강민구 역, 서울: 소명출판, pp. 136-137. 衣食類.
- 56) 현재는 유색면으로 갈색을 띤 茶綿이 일부 재배되고 있다(심연옥, *op. cit.*, pp. 48-53.).
- 57) 이옥 (2009 a), *op. cit.*, pp. 305-307. 記 市奸記. : 이옥 (2009 b), *op. cit.*, p. 373. 傳 李泓傳.
- 58) 조재삼, *op. cit.*, p. 240. 財寶類.
- 59) 성대중 (2012), *청성잡기*, 한국고전번역원 역, 서울: 울재, pp. 250-251.
- 60) 이옥 (2009 a), *op. cit.*, pp. 308-391. 記 中興遊記.
- 61)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2), *朝鮮時代 風俗畫*, p. 216.
- 62) 국립국악원 편 (2004),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II*, 서울: 민속원, p. 148.
- 63) 이옥 (2009 b), *op. cit.*, pp. 74-75. 文餘1-鳳城文餘, 社黨.
- 64) *Ibid.*, p. 114. 文餘1-鳳城文餘 魅鬼戲. : *Ibid.*, pp. 115-116. 文餘1-鳳城文餘 乞供. : *Ibid.*, pp. 123-124. 文餘1-鳳城文餘 巫祀.
- 65) 국립민속박물관 편 (2011), “걸림패”, *한국민속신앙사전*, 웹사전.